구조조정 홍역 속 지역 저축銀 '선방'

6곳 3분기 평균 BIS 비율 12%…전국 웃돌아

센트럴 흑자 전환·브릿지 등 2곳 흑자 발판

지난해 저축은행업계가 구조조정 등 부실사태로 홍역을 치르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저축은행중앙회 경영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에 본사를 둔 저축은행(6월결산법인) 6곳의 2011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 3분기까지 평균 BIS 비율은 12.31%로 전국 저축은행 평균(6.83%)을 크게 웃돌았다.

부실채권비율을 뜻하는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지역 저축은행은 평균이 15.93%로 전국 평균(20.06%)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자산건정성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BIS 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자산 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서 우량 저축은행을 판단하는 기본 가이드 라인은 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미만이다.

이처럼 지역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은 PF대출 액수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부실사태로 인한 저축은행의 이미지 추락으로 인해 영업환경이 나빠져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트럴저축은행이 전분기 당기순손실(-5억원)에서 당기순이익(18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골든브릿지저축은행과 무등저축은행이 흑자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저축은행들은 수익성이 더욱 악화됐다.

◇광주·전남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지표

〈자료:저축은행중앙회〉

저축銀	BIS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골든브릿지	6.49%	16.72%
대한	9.04%	14.57%
동양	7.62%	25.90%
무등	8.18%	14.06%
센트럴	35.45%	16.39%
스마트	7.12%	7.91%

※우량 저축은행 판단기준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미만

동양저축은행(-36억원), 스마트저축은행(-15억원), 대한저축은행(-5억3000만원) 3곳은 당기순손실 적자폭이 확대됐다.

전국의 경우 새로 출범한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과 영업정지 상태인 미래·한주저축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 89곳 중 48.3%인 43곳이 적자를 냈다.

적자 폭이 커지면서 자본잠식도 심각한 상태다. 자본금이 바닥나면 결국 도산하게 된다.

올해 3월 말 현재 저축은행 89곳 중 41.6%(37곳)가 자본 잠식 상태다. 이 중 7곳은 자본금을 까먹고 부채로 버티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완전자본잠식 상태는 솔로몬, 한국, 토마토2, 우리, 대원, 삼일, 세종저축은행 등이다.

현대, 신민, 예쓰 등의 저축은행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자본잠식률이 여전히 각각 80.7%, 54.6%, 66.9%로 위험수위였다.

작년부터 이어진 구조조정에도 저축은행 상태가 더욱 나빠진 것은 이미지 추락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 영업환경이 좋지 않았고 더불어 건설경기 침체로 PF 부실 채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17주년 '광주신세계'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조창현)가 25일 개점 17주년 기념 행사를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건현 신세계 대표이사, 조창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한성건 파파야코리아 대표이사, 정운석 블랙야크 사장, 김동수 (유)한국피앤지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9배 비싼 건전지, 성능차이는 고작 1.6배

건전지의 가격 대비 성능이 제품별로 차이가 커 제품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AA' 사이즈 건전지 12개 제품의 사용조건별 용량(사용 가능시간)과 가격 등을 비교 시험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시험은 에너지 소모가 작은 리모컨, 디지털도어록 등에 건전지를 사용하는 '저율 방전'과 에너지 소모가 큰 디지털카메라 등에 쓰는 '고율 방전'으로 나눠 진행됐다.

가장 비싼 '에너자이저 얼티메이트 리튬'(2725원) 제품의 가격은 가장 저렴한 '테스코 파워하이테크'(300원)보다 9배나 더 비쌌다.

저율방전에서 성능이 가장 떨어지는 제품은 '로케트 파워'(2059mAh)였고, 가장 우수한 제품은 '에너자이저 얼티메이트 리튬'(3205mAh)이었다. 성능 차이는 1.56배에 불과했다.

고율방전 때는 성능 차이가 더 컸다. 성능이 가장 떨어지는 제품은 '로케트 파워'(400mAh)였고, 성능이 가장 우수한 제품은 '에너자이저 얼티메이트 리튬'(3000mAh)이었다. 성능 차이는 7.5배였다.

소비자원 조경록 팀장은 "저율 방전에서는 성능 차가 크지 않으므로 가격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고율 방전에서는 교체주기를 생각해 성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비교 정보는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합뉴스

은행 BIS비율 1년 연속 하락

건전성은 이상무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은 올해 6월 말 13.83%로 3월 말보다 0.05%포인트 낮아졌다.

은행 BIS 비율은 지난해 6월 말 14.40%에서 4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기본자본 비율도 11.02%로 지난해 6월 말 11.61%에서 올해 6월 말 11.02%로 낮아졌다.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기본자본비율은 자본의 범위를 더 엄격히 따진다. 두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의 건전성은 좋다.

은행들은 올해 2분기 2조2000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수출입은행의 자본이 8000억원 늘어 자기자본이 2조3000억원 증가했다. 그럼에도 BIS 비율이 하락한 것은 산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자의 신용위험이 큰 위험가중 자산이 21조3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BIS 비율이 여전히 감독 기준치인 8%를 웃돌아 건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불황에 카드소비 '신중'

결제금액 전년보다 3.3% 소폭 증가

경기침체에 신용카드 이용실적 증가세도 고공행진을 멈췄다. 소비자들이 카드를 쓰는데 신중해졌다는 뜻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상반기 중 지급결제동향'을 보면 올해 6월까지 신용카드 결제금액(승인기준)은 하루 평균 1조514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3% 증가하는데 그쳤다. 신용카드 결제금액 증가율은 2009년 상반기 1.7%에서 반등해 작년 상반기엔 11.2%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하반기 8.0%로 주춤한 뒤 증가폭은 크게 낮아졌다.

신용카드의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1973만건으로 13.6% 늘었다. 그러나 건당 결제금액은 2003년 22만원, 2008년 상반기 11만3000원, 올해 상반기 7만7000원으로 하락 중이다.

발급장수 역시 6월 말 현재 1억1638만장으로 1년전(1억2231만장)에 비해 4.8% 줄었다. 감독당국의 휴면 카드 정리 지도의 영향이 컸다. 체크카드의 결제금액은 하루 평균 220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견줘 20.4% 확대됐다.

체크카드 결제금액 증가율은 2009년 하반기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40%를 넘나들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26.6%로 추락한 데 이어 올해는 20.4%까지 내려갔다.

발급장수는 6월 말 8894만장으로 1년 전(8026만장)보다 10.8% 늘었다. 올해 상반기 중 비현금 지급수단의 지급결제규모는 하루 평균 4402만건, 292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1%, 3.8% 증가했다. /연합뉴스

車 보험금 제대로 줬는지 따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년간 자동차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손해보험업계를 검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사 대상 손보사는 LIG, 현대, 흥국, 메리츠, 한화, 롯데 등 6개사다. 삼성과 동부는 하반기 종합검사에서 점검한다. 사실상 업계 전체가 검사 대상인 셈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대차료, 휴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 등 간접손해보험금의 산출·지급이 적정했는지 따져 볼 계획이다./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비철금속·IT…중소형주 단기매매 유리

코스피가 한 주 내내 조정 분위기를 이어갔다. 표면적으로는 지난 5월 초 주가 수준을 회복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달 말과 다음 달로 예정된 주요 통화정책회의 일정을 앞두고 경계심리가 커진 탓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당분간 특정 방향성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요 분기점에 위치한 만큼 최근 사태를 타개할 만한 정책적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큰 폭의 주가 등락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KOSPI의 경우 외국인 매수 강도 약화로 변동성이 다소 커질 소지가 있지만, 1,910~1,920선 전후의 지지력은 이번 주에도 유효할 전망이다. 당분간 박스권 등락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최근 외국인 매매패턴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KOSPI 시장과 대형주보다는 KOSDAQ시장이나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음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갤럭시S3, 갤럭시노트10.1, 아이폰5 등에 탑재된 기술 및 부품 관련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 주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국제가전박람회나 Window8 출시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터치패널 시장의 변화에 관련 기업들도 주목할 만한 시점이다.

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금, 은을 비롯한 동, 아연 가격상승에 따른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반등 가능성에도 꾸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이 두 달 연속 감소하면서 추가 하락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기계업종 등의 주가 약세흐름 속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음식료, 의복, 통신 등 내수주들의 차별적인 상승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주에는 실적이 담보되는 내수 관련주와 비철금속, 중소형 IT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SORISEM 소리샘보청기

맑고 깨끗한 – 소리샘보청기

소리샘보청기가 똑똑해 졌다!

마이크로텍 디지털 기술은 보청기 사용자의 난청형태와 생활환경의 소리를 자동 분석하여 완벽에 가까운 자연의 소리를 들려 드립니다.

마이크로텍 기술로 개발된 소리샘보청기가
이/렇/게/똑/똑/해/졌/어/요/!

① 자동 피드백기술로 삑삑소리가 없어졌어요 (PureWave Feedback Eliminator)
② 음향센서로 소음속에서도 말소리가 잘 들려요 (Acoustic Scence Analyzer)
③ 방향성 어음감지로 소리가 더욱 선명해요 (InVision Directionality)
④ 실시간 음향특성을 분류하여 편안하게 들려요 (AudioScape)
⑤ 귀 내부 소리 반응을 측정해서 적합 피팅해요 (Live Real Ear Measurement)
⑥ 핸드폰으로 보청기를 조절해요 (T2 Technology)
⑦ 보청기 상태와 약속시간을 목소리로 알려드려요 (Voice Indicators)
⑧ 전화기를 대면 전화모드로 자동전환돼요 (Automatic Telephone Solutions)
⑨ 소리를 컴퓨터로 보면서 피팅해요 (Live Speech Mapping)
⑩ 하나의 보청기로 4개의 보청기 효과를 누려요 (Multi Memory)
⑪ 보청기에 기억된 사용환경 데이터로 조절해요 (Data Log)
⑫ 고막형은 귀속에 쏙들어가 안보여요 (CIC Type)

(주)소리샘보청기 가맹점 모집안내

고령화 시대의 유망업종 보청기 사업에 현재 개설된 42개 지역외에 시/군/구 지역에 동참하실 가맹점주를 모집합니다.

- 개설안내 홈페이지 가맹점개설안내 참조
- 개설담당 조성운 과장 010-9244-5296
- 본사전화 02-499-7300

microtech the easy choice

지금 소리샘보청기 전국가맹점에 문의하세요! 1588-2008 www.sorisem.co.kr

서울권
종로점 02-2269-9911
강남점 02-572-6662
대림점 02-858-2750
중랑점 02-744-5558
홍제점 02-725-5869
서울대 02-872-2003
강서점 02-2658-0023
강북점 02-945-2393

경기권
구리점 031-555-2700
평촌점 031-388-5666
부천점 032-322-7782
수원점 031-252-3992
동인천 032-764-1411
파주점 031-946-6464
분당점 031-704-5255
일산점 031-923-9339
강화점 032-933-2565

강원권
원주점 033-743-0533
강릉점 033-641-8129
춘천점 033-243-9969
동해점 033-533-4171

충청권
대전중앙 042-931-4121
대전중구 042-221-4260
금산점 041-753-6809
괴산점 043-832-2364
진천점 043-536-6003
청주점 043-225-0038

영남권
대구성서 053-526-9555
대구중구 053-253-6868
마산점 055-245-7898
부산서면 051-816-9771
진주점 055-741-1252
김해점 055-324-2789
창원점 055-288-8088
울산점 052-269-2900
고성점 055-674-7030

호남권
광주점 062-673-8070
목포점 061-284-4815
순천점 061-744-5013
익산점 063-841-1149
고창점 063-561-0603

제주권
제주점 064-753-5347